

# “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업무 공간”을 목표로



이번 탐방은 '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업무공간으로 만든다.'는 굳은 각오로, 개관한 이래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및 안전업무를 철저히 실행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을 방문하여 손금용 방화관리소장을 만나 보았다.

글 | 이미숙 협회 경영기획부 대리

## 교직원의 복지기관 - 한국교직원공제회

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에 대한 공제제도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·육성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, 특별법에 의해 1971년 3월 16일에 설립된 교직원 복지기관이다. 70만 명의 회원과 13조 원의 자산, 8개의 산하 사업체를 보유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제도 운영 외에도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사업, 복리·후생사업,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, 수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.

##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지부

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시·도별 16개 지부가 있다. 이중 우리가 방문한 광주지부는 서구 농성1동에 지하 3층/지상 14층, 연면적 28,209㎡ 규모의 광주회관을 1996년 9월에 개관하였다. 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한 광주회관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사무환경으로 사무실 임대에도 인기가 높으며, 대형연회장, 수영장, 사우나, 체력단련장,

실내골프장, 레스토랑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.

## 철저한 방화관리, 효과적인 화재예방교육

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은 (주)대교산업에서 시설 및 경비, 위생 등 총 41명이 사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 이중 16명이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, 광주회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휴일 및 야간에도 8명이 상시 근무하여 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애쓰고 있다.

매일 약 1,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 광주회관은 연회장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에,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입주사를 비롯한 건물 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화재사고 등 화재예방에 효과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화재예방교육을 방송을 통해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, 매월 화재예방 관련 공문을 각 입주사에 보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다. 또한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매월 교육을



한국교직원공제회, 광주회관 전경

실시하고 있으며, 실생활에 꼭 필요한 화재예방상식 및 소화요령, 화재시 조치사항 등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. 소방훈련은 매년 현장 상황에 맞게 종합 소방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제회 직원 및 건물 입주사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어, 교육계획자료 작성 및 형식적 훈련으로 끝나는 어느 건물들과 차별화되게 운영하고 있다.

한편, 건물 준공시점인 1997년 7월 1월부터 무사고 무재해운동도 실시하여 2007년 1월 말 현재 무재해 3,867일을 달성, 4,000일을 앞두고 있는 등 준공 이래 단 한건의 사소한 화재나 사고, 재해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.

### **방화관리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**

소방안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방화 관리자로서, 소방 업무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그 본분에 충실한 손금용 소장의 각별한 노력은 광주회관의 화재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우리 협회 광주지부 직원들을 비롯하여 지역 소방서에까지도 정평이 나 있어, 행정자치부장관상 및 소방방재청장

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역소방서 홍보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. 손 소장은 “아무리 훌륭한 소방시설 및 소방계획을 갖추고 있어도 유사시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,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소방계획의 효율적인 작성 및 실시를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.”고 강조했다.

누구나 자기 직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있기 마련이다. 하지만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업무에 신념과 사명감, 자긍심 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. 이런 면에서 손 소장의 직업철학, 업무에 대한 애착, 안전에 대한 의식 등은 감히 최고라고 말하고 싶다. ‘화재는 인재’, ‘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이 부른 사고’ 등의 말이 사고 때마다 나오는 지금, 손 소장을 비롯한 모든 사옥관리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의 안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 믿으며 탐방을 마쳤다. (☎)